3) 축 구

축구경기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축구가 도입된 때는 1890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 관립 외국어학교의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 첫선을 보였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후 학교체육의 일환으로 1896년경부터 외국어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운동회의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해에 외국어학교를 나온 당시의 어전통역관들이 대한축구구락부를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그것은 궁내부 참리들과 어전통역관들이 외국 유학에서 돌아와 외국의 본을 따 조직한 것으로, 1897년 영국함선이 인천에 입항하여 그 수병들이 축구를 보여준 뒤 본격적인 축구팀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축구시합에 관한 기록은 1899년 5월 동소문 밖 삼선평에서 황성기독교청년회와 오성학교가 영국인 교사의 지도 아래 경기를 치른 것이 남아 있다. 또한 『배재 80년사』의 특별활동 내용 가운데 축구에 관한 기록을 통해 당시 축구경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축구경기 내용이 비과학적이기는 해도 오늘날 학교체육의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대중화되기까지 학교대항 경기의 활성적 면모를 엿보게 하는 과도기적 풍속이라는 점에서 중요시될 수 있다. 1908년 보성소학교에서 창립 4주년 기념 운동회를 할 때 축구경기를 포함시켰는데, 당시의 축구경기 명칭은 경구・탕구・척구 등으로 불렸다.

축구의 유입과 적응이 이처럼 왕성했던 것은 우리의 전통 단체경기 가운데 이처럼 간편하게 적용될 수 있는 종목이 드문데다가 구기가 갖는 경기기술의 대중성, 스포츠적 규칙 적용성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 축구의 경기 장소는 지금의 금곡동에 소재한 향교 뒤 묵정밭과 언제나 개방된 매산 운동장이었다. 당시 순천 축구인으로는 상해에서 유학을 마치고 1922년 매산학교로 부임한 축구 지도자 김원복과 평양 숭실전문학교 유학생 박형렬・강철주・지용섭 등이 있었다. 일본 유학생 정문기도 방학을 이용하여 축구경기에 합세하곤 하였다. 이때부터 헤딩과 드로잉, 페인트기술 등 기초기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논두렁, 잔디밭 할 것 없이 빈 공터만 보이면 무조건 공차기를 즐겼다.

축구는 일약 조직화되어 묵정밭에서 남조선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약 8,000평의 묵정밭에는 축구장과 정구코트 등이 있었으며, 해마다 대회가 개최될 무렵에는 인근 여수・광양 등지에서 선수들이 출전했다. 특히 박형렬 선수의 묘기는 일품이어서 가는 곳마다 환성이 터졌다.

1930년 김병수(민선 순천체육회장)를 주축으로 순천축구단을 창설하였으며 순천의 축구는 이때부터 명맥을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듬해에는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 있는 1931팀을 창설하였는데 창단 구성원은 서정선・정갑래・오명래・김경석・김창두・한남진・한춘동・서동석・김성윤・김동신・김귀동 등이다.

김병수 체육회장을 축구단장으로 한 1931팀은 이때부터 경성을 비롯한 대도시 대항에 출전, 가는 곳마다 기염을 토했다. 관람석에서는 박형렬의 독특한 묘기가 나올 때마다 환호가 터지면서 '순천의 백두산', '순천의 번개' 등 갖은 별명을 붙여주었다. 박형렬은 당시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었는데, 경평전의 평양대표 선수로 이름을 떨쳤다. 방학 때 순천에 내려오면 1931팀에 곧잘 흡수되었고, 평양에서 습득한 기술을 보급하였다. 또한 1935년 4월 25일 전조선 도시대항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8일 제11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여 순천 축구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1936년 7월 하순 일본 유학생들이 축구팀을 구성하여 모국을 방문하였다.(이들 선수 중에는 조선대표 선수인 김용식도 있었다) 그들은 부산을 필두로 통영・삼천포・여수를 경유하여 순천 철도운동장에서 일전을 하게 되었다. 이때 철도 운동장은 관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1931팀의 박철규 선수의 왼발 강슛으로 원정경기에서 전승을 하던 유학생팀을 1 대 0으로 이겨 순천의 축구가 더욱 유명해졌다.

1936년에 1931팀은 남조선종합경기대회에서 준우승하였으며, 이때의 선수는 박형렬・서정선・오일룡・김인순・정봉득・정갑래・최봉찬・오명래・김경석・한남진・김인형 등이었다. 그후 일제 말엽인 1940년대에 들어와서 1931팀이 점차 쇠퇴하고, 순천 철도국 축구단이 창단되었다.

1940년대 후반기부터 축구가 또다시 활성화되어 한국전쟁 전후인 1950년대 전반기를 거치면서 순고 대 순농의 축구 대결은 그야말로 백중지간으로, 심지어는 결승전을 3일간이나 치를 정도였다. 이렇게 과열된 두 학교간의 축구 열기는 순천 축구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당시의 호남 축구의 간판격인 순천 철도국팀은 이 고장 축구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무렵 순고와 순농의 대결은 오늘날의 연・고전에 비견할 만하고, 경기가 열리는 날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응원전이 되어 그날의 함성은 승평원두를 가득 메우고도 남았다.

1945년대에는 1931팀의 후신인 철도국팀이 전국 우수선수 수상자인 오일룡 축구협회 회장을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이때의 선수는 오일룡・예기옥・국채인・박형철・김지중・한춘성・정충기・서봉진・박종문・이승식・예기한・박일양・허용・서행수・박문철・김기수・김영수 등이었다.

1960년대에는 순천사범, 조선대학교를 거쳐 조선방직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된 국채인 회장을 필두로 황인룡・남인우・장세규・신근재・서영수・윤영수・김인배・김인승・박종기・윤해근・박화덕・정덕수・황인택・홍정음・김영창・정혜경・서홍석・김국진・김병조・박동순 등이 활약하였다.

그후 순천은 국가대표 선수 김기호를 배출하였으며, 각급 학교 운동장에서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조기축구가 활성화되어 각 직장팀을 비롯 20여 개의 클럽에 640여 명의 회원이 활약하고 있다. 학교체육으로는 중앙초등학교・매산중・순천고의 축구부가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